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후원미사는 20일, 12월 후원미사는 18일, 2018년 1월 후원미사는 15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7년 9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 수입 총액 | 18,173,740 | 전월이월금 | 2,415,577 |
|-------|------------|-------|-----------|
| 지 로   | 2,308,100  | 우리은행  | 4,142,563 |
| 국민은행  | 4,031,000  | 하나은행  | 1,289,000 |
| 조흥은행  | 95,000     | 신한은행  | 1,015,000 |
| 외환은행  | 387,500    | 제일은행  | 165,000   |
| 농 협   | 1,400,000  | 기업은행  | 380,000   |
| 우 체 국 | 55,000     | 지정기탁  | 490,000   |
|       |            | 교구보조  | -         |

#### 지출내역

| 항 목                   | 지 출        | 세부내역       |                                    |
|-----------------------|------------|------------|------------------------------------|
| 단<br>체<br>찬<br>조<br>비 | 베들레헴어린이집   | 6,500,000  |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
|                       | 베다니아의 집    | 1,000,000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
|                       | 벗들의 집      | 925,000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
|                       | 마고네공부방     | 1,200,000  | 간식비, 교육비 등                         |
|                       | 몽골공동체      | 200,000    | 제전비                                |
|                       | 남미공동체      | 300,000    | 제전비                                |
|                       | 상호문화센터     | 700,000    |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
|                       | 소 계        | 10,825,000 |                                    |
| 지원금                   | 노동사목위원회    | 5,000,000  | 장기수선총당금 등                          |
| 운영비                   | 이주사목위원회    | 485,000    | 운영비 등                              |
| 지정기탁금                 | 지정기탁       | 490,000    |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
| 지출 총액                 | 16,800,000 | 잔액(이월금)    | 1,373,740                          |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7. 10 / 제16호

펴낸날 2017. 10. 16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들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기려.

후원회원 여러분과 그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계획하고 다짐하면서 시작했는데 숨가쁘게 살다보니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지나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명절을 지내면서 고향을 찾고 조상을 기억하고 떨어져 지내던 가족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큰 위안과 행복을 얻어 다시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이들, 조상의 묘를 방문할 수 없는 이들, 가족과 떨어져 명절을 지내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주민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아파하고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종교, 국가, 인종 등, 모두를 떠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이 바람을 내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사치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주사목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연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도, 산업재해와 의료문제도 아닌 가족의 붕괴였습니다. 가족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동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가족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불어 가장 힘든 현실은 많은 이들이 이주민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교종 프란치스코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교회, 이민자들을 환대하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가슴 뜨겁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교회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꺼려합니다. 단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혜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위로합니다. 정작 그들을 우리의 공간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본당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이들 중에는 우리와 같은 신자가 분명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주민에게 가족을 만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함께 있는 우리가 그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함께 하기를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가 후원자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0월 한가위 연휴를 보내면서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 공동체 소식

#### 필리핀공동체 25주년 소식\*

서울가톨릭 필리핀공동체 설립 25주년 기념행사를 10월 8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념미사는 혜화동 성당에서 유경춘 디모테오 주교님(서울대교구 사회사목 교구장 대리) 주례로 집전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전통 문화를 알리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격려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은 본국으로 송환되는 이주노동자와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필리핀 전통 음식과 댄스 퍼레이드, 각종 공연 및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여한 이주민들은 공동체의 25주년을 기억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남미공동체 소식\*

남미공동체는 절두산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가 함께 참여하여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렸습니다.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의 순교성인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 서울가톨릭 상호문화센터 소식\*

(사)대한어한의사회의 후원으로 9월 17일에 제2차 무료한방진료가 있었습니다. 무료한방진료는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한의학을 자연스럽게 알고자하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지난 1차 무료진료는 한국어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이주민과 인근 주민자치센터 홍보를 통해 선주민들 진료로 진행되었고, 이번 진료에는 베트남, 몽골공동체 신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는 무료한방진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누구에게나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더욱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텃밭가꾸기(고구마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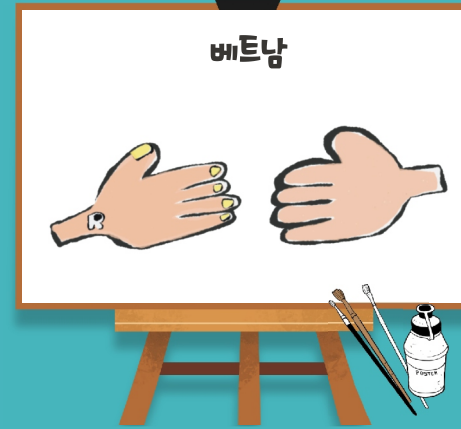


▲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 살레시오수녀회(로마본부) 수녀 방문

### 문화알림 인사예절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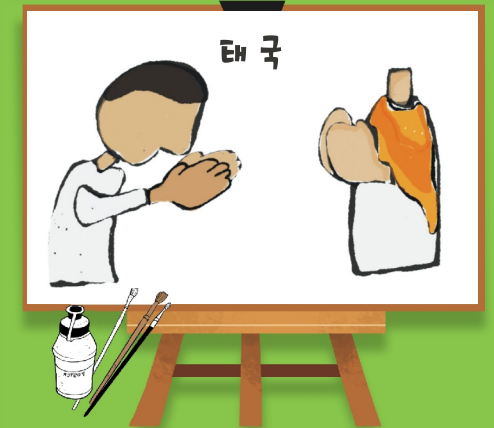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남녀가 악수할 때 남자는 여자가 악수를 먼저 청하길 기다리며 만약 여자가 청하지 않을 시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이 매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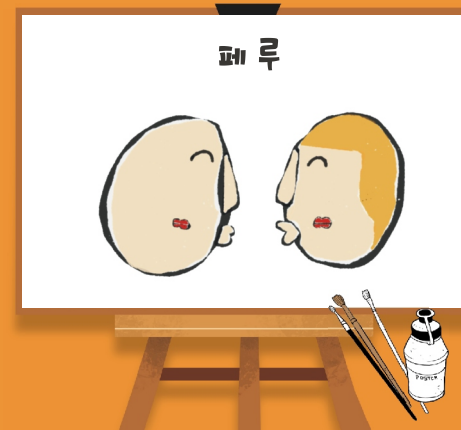
베트남 사람과 악수를 할 때는 왼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베트남에서의 왼손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두 손을 가슴 끝에 모아 합장하는 것이 기본 인사예절로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따라 합장을 하는 손의 높이가 달라진다.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일 때는 가슴높이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코와 입술 높이에서, 왕이나 스님에게는 눈썹 높이에서, 신에게는 머리 위의 높이에서 합장을 한다.



\*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니어도 친근감의 표시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곤 한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를 존중받아야 할 부위, 신성한 부분이라 여겨 만지는 것을 금시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는 '비주'라는 인사법을 한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사이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거나 뺨을 부드럽게 부딪치는 인사로 오른쪽 뺨부터 입을 맞추는 것이 관례이다.

나라마다 횟수가 다른데 한번 혹은 네 번까지도 한다.